

## 영화 『나쁜 교육』:

신성모독을 통한 반가톨릭정서의 표현에서 문화적 반영으로\*

송 선 기  
(조선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1980년 첫 번째 상업 영화인, 일종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페피, 루시, 봄 그리고 한 무리의 여자 아이들, *Pepi, Luci, Bom y otras chicas del montón*(1980)』을 시작으로 스페인 문화·예술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재구성하면서 세계영화계에 새로운 거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페드로 알모도바르(Pedro Almodóvar)감독이 제작한 최근까지의 이십여 편의 작품들<sup>1)</sup> 중에서, 전통 가톨릭 관점에서의 성의 금기와 터부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며, 기존의 성 담론을 전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나쁜 교육 *La Mala Educación*, 2004』에 드러나는 제 3의성 혹은 동성에 담론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시대·역사적 의미를 추적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지향점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영화가 구현하는 파괴적이고 전복적이며, 퇴폐적인 성의 묘사가 그 이전의 알모도바르의 작품들에 구현된 성에대한 묘사와는 일정정

---

\* 이 논문은 2010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페피, 루시, 봄 그리고 한 무리의 여자 아이들』을 시작으로 최근의 작품인 『내가 사는 피부 *La Piel que Habito*(2011)』까지 총 18편이지만, 그 이전에 제작한 실험영화들까지 합한다면 20여 편이 넘는다.

도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성직자의 성적 일탈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에 있으며,<sup>2)</sup> 이 영화가 시간적 배경으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가 1960년대 말에서 1970 년대를 거쳐, 프랑코 사후인 198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프랑코 지배기간 동안에 억압받았던 소수의 성, 종교적 도그마에 얽매어 은폐된 성, 성직자들의 성적 월권에 대한 구체적 체현이며 비판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도 본고의 지향점이다.

셋째, 이 영화<sup>3)</sup>의 시간적 배경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실제적으로 작품 속에서 알모도바르가 상정하고, 그리고 있는 시대는 그가 살고 있고, 그가 경험한 시대인 조형적 섹슈얼리티<sup>4)</sup>가 유행하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그의 이 영화가 갖는 전복성, 외설성이 반가톨릭정서의 발현을 넘어 변화되어가는 문화적 환경, 즉 현대 유럽의 성 문화, 특히 스페인의 성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일반적 차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나쁜 교육』이 제작되기까지

### 1. 알모도바르 영화를 통해 본 특별한 성 인식

1980년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첫 번째 상업영화 『페피, 루시, 봄 그리고 한 무리의 여자 아이들』을 촬영했는데 이 영화는 언더그라운드 미학과 함께 모비다 영화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범람하는 성적 표현, 록 음악과 볼레로, 유머, 전통에의 경시 그리고 전위 만화에의 근접이 이 새로운 스페인영화

- 
- 2) 전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교도라는 세계인들이 뇌리 속에 각인된 스페인은 금욕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것과 연결된 국가로 인식되어왔다. 사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과거의 스페인 사회를 연상하는 세계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3) 본문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영화’와 ‘영화대본’은 각각 별개의 것이나,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상호 병기할 것이다.
  - 4) 재생산, 친족관계, 그리고 세대 등에 오래 전부터 통합되어 있던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온 섹슈얼리티. (엘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66.)

의 특징일 것이다.<sup>5)</sup> 특히 이 영화는 여성의 성 해방과 탈 남성중심주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어둠 사이에서 *Entre Tinieblas* (1983)』에서는 세 명의 수녀들이 어두운 환경에서 마약과 레즈비언이즘, 수간 등을 뒤섞어 가톨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성과 극단적 대치를 보여주며, 서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의 가톨릭이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간<sup>6)</sup>과 레즈비언이즘의 문제를 체현하고 있다.

동성애를 다룬 사랑과 죽음에 대한 대서사시 『욕망의 법칙 *La Ley del Deseo* (1987)』, 젊은 절도범이 혼자 짝사랑하던 마약에 찌든 한 3류 여배우를 납치하여 감금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사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과격을 보여주는 『날 묶어 줘 *Átame!* (1990)』, 허구와 현실이 뒤섞인 인간사의 미묘한 이치와 인간정신의 숭고함을 그린, 이전의 작품들과는 상이한 주제의 『내 비밀의 꽃 *La flor de mi secreto* (1995)』,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최악의 질병으로 대두된 에이즈, 오늘날 세계적 문화현상의 일부로 부각되고 있는 동성애,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수녀라는 무거운 소재를 담은 『내 어머니의 모든 것 *Todo sobre mi madre* (1999)』도 알모도바르만의 특별한 성 인식과 성적 취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특히 이 영화는 최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sup>7)</sup>에 대해 새로운 각도의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감독은 서구사회가 전통적 관념에서의 성의 규범인 이성간의 결합 이외의 모든 인간의 행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혹은 역병과 관계되는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치부하려는 인습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약간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며 성 정체성이 불확실한 한 남자간호사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무용수를 사랑하고, 그녀가 뇌사 상태인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시켜 성 폭행 혐의로 수감되어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는 내용을 담고

5) (장 클로드 스캅, 『스페인 영화사』, 137-139.)

6)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성서 레위기 20장 15-16절)

7) 성의 문제가 단순한 감독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스페인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직접 경험한 감독의 자기반영적 측면을 갖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있는 『그녀에게 *Hable con ella* (2002)』도 알모도바르만의 특별한 성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모도바르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성과 사랑에 대한 규준들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사랑에 대한 실험과 파격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 그만의 독특한 성 인식을 영화들을 통해 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나쁜 교육』<sup>8)</sup>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 전통적인 성은 동성애<sup>9)</sup>의 세계로 혹은 가변적 섹슈얼리티 코드로 대치된다. 예를 들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사하라와 파카의 경우에서 복장도착증후군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익나시오의 경우에서 트랜스젠더의 경우를, 후안, 엔리케, 마누엘 베렝게르의 경우에서 성적 이중성으로 대변되는 남녀양성 공유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 알모도바르 감독이 만든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개성적인 작품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영화가 갖는 독창성과 도발성으로 영화에서의 적색 장르의 복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만하다.<sup>10)</sup>

## 2. 영화 속의 영화를 통해 본 『나쁜 교육』

2004년에 제작된 영화로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를 아우르고 공간적 배경은 마드리드다. 성공한 영화감독 엔

8) 영화는 그 이전의 알모도바르의 영화들인 『욕망의 법칙 *La ley del deseo*』, 『마타도르 *Matador*』 등과 비슷한 유형의 어두운 톤을 보인다. 영화는 마드리드, 발렌시아, 알레야 등 주로 스페인에서 촬영되는데, 프랑코 시대의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 오랜 전통의 바르셀로나 부근의 ‘피아스 데 알레야(*Pias de Alella*)’ 학교의 19세기 신고전주의 건축물이 그 중요 촬영장소이다. 영화 속 배경음악의 악보는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Alberto Iglesias*)에 의해 작곡되고, 바이올린의 선율과 소년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어울려 영화의 어두운 분위기를 잘 재현하고 있다.

([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

9) 그의 영화들에서는 『나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여러 작품들에서 동성연애자로 정의할 수 있는 성적체성이 불확실한 등장인물들이 종종 등장해왔는데, 이것은 그의 성적 정체성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동성애자로 알려진 알모도바르는 성과 젠더의 혼란을 사랑하고 고정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의 스타일을 보여 주고 있다.

10) [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

리케 고뎃에게 자신은 옛 신학교의 동창 익나시오인데 지금은 개명하여 앙헬이며 이제부터는 앙헬로 불러주라고 요구하는 한 친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문객[La visita]」이라는 시나리오를 썼으며 이를 영화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며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엔리케는 당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적당한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익나시오(앙헬)의 시나리오를 읽어본 후 실화와 허구가 뒤섞인 그의 이야기에 매료돼 영화화를 결심한다. 그런데 작품의 중요 등장인물 사하라역할을 자신이 맡겠다고 앙헬이 고집한다. 엔리케는 앙헬이 이 배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화가 난 앙헬은 엔리케와 심하게 다툰 후 떠나 버린다. 이 지점에서 「방문객」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 속의 영화를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후반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한 엄격한 신학교에서 두 소년, 익나시오와 엔리케는 서로 특별한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지만 이 학교의 교장이고 문학선생인 마놀로 신부에게 발각되고 이를 계기로 헤어지게 된다. 이후 16여년이 지난 후 이들은 다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만나게 된다. 엔리케는 원래의 엔리케인 상태이고, 익나시오는 자신을 익나시오라고 속이는 익나시오의 동생 후안이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남자다. 이렇게 전개되던 영화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들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과정으로 전환된다. 총명하고 낭랑한 목소리의 어린소년 익나시오에게서 소아 기호증, 즉 12세 이하의 소년 또는 1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피도필리아(pedophilia)’<sup>11)</sup>적인 심리상태를 소유하고 있었던 마놀로 신부는 소년을 사랑하게 되고, 두 소년 사이의 우정과 사랑에 질투심을 느낀 그는 엔리케를 퇴학시키려한다. 엔리케와의 이별을 두려워하던 익나시오는 엔리케를 퇴학시키지 않는다면 신부가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 간청하며 자신의 몸을 제공하지만 신부는 결국 엔리케와 익나시오를 갈라놓았다. 엔리케는 퇴학을 당했고 성장해 영화감독이 된 그는 배우가 된 익나시오의 동생 앙헬 (혹은 후안)을 만난 것이다. 사실 실제 익나시오는 어렸을 때 마놀로에게 당한 성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11) (시부사와 타츠히코 『몸, 쾌락, 에로티시즘』, 83.)

마약 중독자가 된다. 후안은 자신의 형 익나시오가 고모의 노인연금과 자신의 학비까지도 가로채자 마놀로 신부와 공모하여 과도한 량의 마약을 복용시켜 형을 살해한 후 자신을 익나시오라고 신분을 속이고 엔리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앙헬에 의해 엔리케에게 전달된 「방문객」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영화는 다시 실제 영화로 되돌아간다. 엔리케는 후안이 그를 방문했을 때 남겨 두고 간 라이터를 단서로 갈리시아에 있는 익나시오(후안)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간다. 익나시오의 어머니는 실제 익나시오는 3년 전에 죽었으며, 그의 사무실로 찾아간 사람은 익나시오의 동생 후안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제 영화는 앙헬(후안)과 엔리케 사이의 동성애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익나시오가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던 마놀로 신부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한 시도와 과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그리고 이미 파계한 마놀로 신부가 베렝게르로 돌아와 익나시오의 협박을 받고 익나시오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동생 후안을 만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후안(앙헬)에게 사랑을 느끼고 빠져드는 과정, 후안이 베렝게르와 공모하여 익나시오를 살해하는 과정과 최종적으로 베렝게르가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시나리오, 영화, 영화의 촬영과정을 중첩시켜 다면적으로 이해해야하는 복잡한 즐거리를 갖고 있다.

### III. 변화되는 성문화의 반영으로서의 알모도바르 영화

#### 1. 스페인과 유럽의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

1975년 프랑코 사망 이후, 36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자유의 향유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적 표현들이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그의 독재통치 기간 동안 문화예술계를 통제해 왔던 검열이 사라졌으며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스며든다. 억압적이고 단선적이며 위계화된 사회를 이루었던 프랑코 치하에서 초월적이고 금욕적인 세계관이 중시되고 모든 신체와 관련된 형이하학적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어떤

것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프랑코와 그의 추종자들이 스페인 내에서 생산되었던 모든 문화적 산품들에 대해 체제 지배이념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사실 그들이 상정한 문화적 생산물들에 대한 선별과 통제의 핵심적 관건은 그 생산물들에 지배집단의 이념에 반기를 드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특히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선정성, 외설성의 표현여부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영화에서는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표현에 대한 보수적 관점에서의 감시가 가장 중요한 테제였다. 사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교회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모든 인간의 행위, 즉 색다른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은 모두 죄를 짓는 행위였다. 그러나 체제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스페인 국민들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작품들에 드러나는 성적표현들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져 왔으며 종교적 도그마에 얽매어 금기시해왔던 성적표현 등에 대한 수용능력도 배가되어왔고 개인의 욕망 표출과 함께 새로운 성 문화 인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즉, 현대에 이르면서 성적 욕구와 표현의 문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재생산으로서의 성 의식과 형태 및 그 표현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근본적으로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적 성으로의 지향이라는 세계적 현상을 반영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정치 및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른 남녀 사이의 사회적 성의 상호 관계가 성과 그에 관련된 문화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여 왔다.<sup>12)</sup> 이러한 사회적 추이의 변화와 더불어 성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법적으로도 동성 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스페인사회의 변화기류를 동성 간의 결혼합법화의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교단과 ‘국민당(PP)’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 여당인 ‘스페인 사회노동자당(PSOE)’은 집권 전,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가 지휘한 총선에서 동성 간 결혼을 용인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승리해 정부를 구성한 후, 수많은 토의를 거쳐 ‘민법(Código Civil)’ 개정 법안을 통

12) (한국외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세계의 성문화』, 305.)

과 시키게 된다. 이후 동성혼의 합법화와 이를 기다리던 ‘자랑스러운 게이 (Orgullo Gay)’ 등 단체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들어간다.

2005년 민법개정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동성 간의 결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동성 간의 결혼 합법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10년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놓고 있는 ‘국민당(PP)’의 반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화적 표현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스페인에서의 영화나 문화적 표현물에서 동성애, 수간 등과 같은 성에 대한 묘사나 일탈적인 내용을 담아 온 것은 프랑코 치하에서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13)</sup> 비록 그러한 표현들이 검열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7월 25일 BBVA은행이 실시한 스페인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는 60%의 스페인사람들이 동성 간의 혼인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성 간 혼인을 용인하는 지지도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모도바르의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한 프랑코시대에 억압받았던 성에 대한 묘사의 차원이나 반 프랑코적인 각도에서만만의 해석을 내리는 것이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톨릭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지지도 또한 괄목할 만하게 하락되었다는 사실도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5-31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어떤 종교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75.5%) 응답은 스페인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차지하는 현재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3) 예를 들면 1966년 활동을 시작한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은 동성애를 자기영화세계의 한 축으로 사용하는데, 그의 작품들은 과장과 극단적인 폭력을 특징으로 하여 매우 자주 검열대상이 되었다. 『금지된 사랑의 유희(1975)』에서는 성의 혼탁한 유희가 한 선생과 세 명의 남학생들을 사로잡고, 『피조물(1977)』에서는 아가씨와 개를, 『사제(1978)』에서는 사제와 그의 억압된 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근친상간은 보라우의 은밀한 자들과 사우라의 『내 사랑 엘리사』에 나타나고, 트렌스섹슈얼리티는 비센테 아란다의 『성전환(1976)』에서 다루어졌다. (장 클로드 스캅, 『스페인 영화사』, 137-139.)

찾대다.<sup>14)</sup>라는 점에서 성 문화가 가톨릭의 맥락에서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알모도바르의 영화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중세 초기 성직자들의 부패가 만연하자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교회개혁을 일으켰고 사제가 되려는 자는 독신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스도가 독신이었고, 성모마리아도 정절을 지켰다는 가톨릭 전통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성직자의 성 행위는 금기가 되었고, 독신의 전통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 가톨릭 종교계를 들끓게 한 성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가톨릭을 대변하는 교황청은 아일랜드·오스트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지에서 신부 등,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 받아왔고 교황이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들에 응해 2010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영국을 공식 방문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가톨릭 성추문 이래 가장 강력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된다.

교황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이 곳에서 나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 저지른 어린이 성추행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그리스도의 축복의 힘과 화해를 위한 그의 희생이 피해자들의 인생에 깊은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길 희망하면서 무엇보다 나는 이런 범죄로 고통 받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젊은이들은 현대사회의 유희를 뿌리쳐야 한다”며 “마약, 섹스, 돈, 술, 포르노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하라”고 말했다.<sup>15)</sup>

이처럼 교황은 성직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청교도적 순결주의도 잃지 말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성직자들의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욕구 해소에 대한 욕망은 종교적 금욕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직자들의

14) [http://es.wikipedia.org/wiki/Matrimonio\\_entre\\_personas\\_](http://es.wikipedia.org/wiki/Matrimonio_entre_personas_)

15) <http://wm2991.blog.me/50096860626>

이러한 일탈적 성 충동과 더불어 종교적 순결주의를 비롯된 만삭의 수녀가 등장하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업체의 광고를 잡지에 게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한 미국 잡지가 문제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그 광고에는 ‘티 하나 없이 폼다’, ‘아이스크림은 우리의 종교’라는 문자가 삽입돼 있다.<sup>16)</sup> 그런데 이 잡지의 독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 광고가 기독교인, 특히 로마 가톨릭신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톨릭적 관점에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수십 세기 동안 지켜온 순수로 상징되는 수녀의 이미지를 비하시키고, 아이스크림을 종교라고 외침으로써 가톨릭의 금기의 성역을 공공연히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문화적 환경의 한 가운데서도 『나쁜 교육』의 상영은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에서의 하나의 충격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영화의 개봉은 원래의 계획보다 1주일 늦춰졌으며, 정당인 국민당은 알모도바르 감독에게 이 영화가 갖는 파괴적이고 전복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쿠데타적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여 강력한 논쟁을 유발한다.<sup>17)</sup> 이렇듯 이 영화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불유쾌한 내용을 담아가톨릭교회로부터, 특히 폴란드와 같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들이 나라에서 강한 반감을 일으켰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되어 가는 오늘날 유럽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쿠데타적 시도’로 정의한 것이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2. 작품에 나타난 신성모독의 직접적인 표현들

알모도바르는 그 자신이 쓴 이 영화의 대본에서 성서의 ‘마태복음’<sup>18)</sup>의 내용을 예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지른 악행을 드러내놓고 비방하고 있다.

16) <http://news.naver>

17) [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

18)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마태복음 제 21장 12-13절)

알모도바르는 성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협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 준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추방은 성지에서 장사를 하며 그들이 보여준 독성<sup>19)</sup>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살아가기 위해 물건을 팔려는 상인들을 몰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키토: 성당이 작아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 이 아저씨가 우리가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원에서 상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들을 내쫓을 거야. 나는 예수가 상인들을 채찍을 휘둘러 쫓아냈다고 믿고 있거든. 그토록 불완전한 인간, 그가 예수그리스도였어!(46)<sup>20)</sup>

게다가 예수그리스도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폄하함으로써 직접적인 독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알모도바르는 그의 영화 대본을 통해 성직자의 예배과정을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비웃는 신성모독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람·장소·성물로 구분하였다. 독성의 중대함은 독성을 범하는 대상의 성스러운 성품이 크면 클수록 더 중대하게 된다. 여기서의 독성의 대상은 ‘축성된 사람에 대한 독성’이다. 교회법은 독성을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로 취급하면서,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회 직무를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성직자의 축성을 비웃고 예배를 드리는 신부의 행위를 비하하는 아래의 지문을 통해 축성된 사람에 대한 독성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19) 그리스도교에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성별된 사람이나 장소·물건 등을 합당한 존경심과 예의 없이 불경스럽게 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죄행을 지칭하는 용어. (<http://100.naver.com/100.nhn?docid=705248>)

20) 이하 작품의 직접 인용은 Un guión de Almodóvar, La Mala Educación, Madrid, Ocho y Medio, 2004, 로 하며 쪽만 표시한다.

너의 말대로라면 저 놈 아주 나쁜 놈이니까. 마놀로 신부: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옵니다. 사하라: 당신 탓이오. 마놀로 신부: 저의 큰 죄이옵니다. 사하라: 당신 탓이오. 마놀로 신부: 저의 잘못이옵니다. 사하라: 그래. 당신 잘못이오.(48)

물론 이 신부는 과거에 그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독성을 저지르고 있는 작품속의 등장인물 사하라(익나시오)에게서 그런 놀림을 받아 마땅한 스스로 축성을 파괴한 신부라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말이다. 성직자의 예배행위에 대한 비웃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종의 범죄 행위이다. 유년 시절 익나시오와 엔리케는 신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영화관으로 달려가 해방감을 맛보며 내밀한 우정을 쌓아간다. 신학교 시절의 어느 날 두 소년은 극장에 가게 되고, 영화를 보며 그들은 동성애적 행위에 빠져든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자위행위를 시켜주었음을 대본은 암시한다.

소년 익나시오: 우리가 어제 극장에서 한 짓은 나뻐어. 소년 엔리케: - 나는 좋았는데. 소년 익나시오: -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건 죄를 짓는 행위였어. 신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야. 소년 엔리케: 신? 난 신을 믿지 않아. 소년 익나시오:- 그럼 넌 뭘 믿어? 소년 엔리케:- 난 향락주의자야. 소년 익나시오:- 그게 뭤데? 소년 엔리케:-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백과사전에서 읽었어.(71-72)

어린 익나시오는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반성적 성찰을 하지만 엔리케는 이미 신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불경스러움을 함축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불경스러움은 피도필리아, 즉 상호간의 자위행위로 표시되는 유아간동성애 혹은 소년애를 상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고백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는 경신과 연결된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는 무례함도 신성을 모독하는 죄악이다.<sup>21)</sup> 알모도바르는 이 영화의 대본에서 인간이 하느님께 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 공경과 성스러움을 철저히 유린하고 경신례를 비웃음으로써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 3. 반가톨릭정서와 저항담론으로서의 동성애

근대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성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류보존을 위한 재생산에 있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양성간의 종족보존을 전제로 한 행위만이 사회·문화적 코드에서 정당성을 획득해 왔다. 종족보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들은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죄악이다. 성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섹스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종교적 관점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재생산으로서의 성의 의미가 강했으나 점차 유희와 쾌락으로서의 성으로 변화해 왔다. 현대 서구사회의 성문화는 성교를 생식목적에만 두었던 가톨릭의 도덕관에 대한 육신의 자유로운 사용을 정당화하여 전통적인 가톨릭주의로부터 이탈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의 명령 또는 자연에 거역하는 범죄로 자위행위, 수간, 동성애, 그리고 여성이 드러누운 상태가 아닌 자세에서의 성교행위 등을 거론했으며, 그 중에서도 수간을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로 여겼고, 그 다음으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는 남성들 간의 항문성교라고 언급하였다.<sup>21)</sup> 가톨릭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성애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 되어왔다. 구약성서 레위기는 동성애자는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는 물론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품은 음탕함, 자위행위, 간음, 간통, 외설, 매춘, 강간, 심지어 피임까지도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신의 의지에 거역하는 범죄행위로 치부하는 항목들에서 우리는 가톨릭교회가 인간의 성행위를 결혼의 경계 내의 행위와 생식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항문성교와 동성애는 죄를 짓는 행위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성행위는

21) <http://100.naver.com/100.nhn?docid=705248>

22) <http://100.naver.com/100.nhn?docid=705248>

23) [http://es.wikipedia.org/wiki/Moral\\_sexual\\_cat%C3%B3lica](http://es.wikipedia.org/wiki/Moral_sexual_cat%C3%B3lica)

이런 관점에서 양성합일과, 생산 그리고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사회와 가톨릭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동성애 담론이 문화텍스트를 통해 구체화되어 유포된다는 사실은 가톨릭 전통에 저항하는 저항의 기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알모도바르는 영화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금지의 항목을 교란하고 터부를 파괴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영화는 관찰할 수 있고 경험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보다는 성적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은폐된 위선적 성의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알모도바르가 작품들을 통해 구현하는 성은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의 등장인물 마놀로 신부를 통해 소아 기호적 코드를 상징하고 이를 구체화 시킨다.

영화에서 당시 소년들이 다녔던 신학교의 전통은 학기별로 최고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하루 동안 교외로 소풍을 가는 상을 받는다. 그들을 인솔하는 사람은 항상 문학선생인 마놀로 신부였다.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소년 익나시오는 소풍에서 천상의 음성으로 마놀로 신부가 작곡한「정원사Jardinero」를 부르고 신부는 소년의 노래소리에 흠뻑 취해있다. 아니 소년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 즉, 교장인 마놀로 신부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후배인 호세 신부는 이 소년을 생일선물로 마놀로 신부에게 받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호세 신부의 행위에서도 가톨릭 교단의 성직자들이 인간 혹은 교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주고 있다. 마놀로신부의 마음은 신에 대한 오만한 믿음대신 익나시오를 독점하고자 하는 강한 성적욕망으로 가득하다.

익나시오를 사랑하던 신부는 갈대숲으로 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하려 하자 소년은 ‘싫어요’(58)라는 외침과 함께 갈대숲에서 뛰쳐나가 길거리로 도망간다. 길거리로 뛰쳐나와 몇 걸음 내 달렸을 때 신부는 흘트러진 신부복의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소년을 부르면서 뒤를 따른다. 몇 걸음 내달리던 소년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이마에 상처가 나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마에 흐르는 피가 소년의 얼굴을 둘로 나누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소년 익나시오: 한줄기 피가 나의 이마를 둘로 갈랐다. 내 인생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원히 둘로 갈라져버리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59)

익나시오가 성 정체성을 상실하고 종교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복선이다. 성인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수의 문화권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 기독교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알모도바르는 작품을 통해 한 성직자의 비정상적이고 금지된 성의 일탈을 통해 성적 터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영화에서 우리는 종교적 전통과 그 도그마에서 일탈해 가는 규제 받지 않는 인간의 행위들을 고찰할 수 있다. 이처럼 알모도바르의 영화는 신성해야 할 성직자의 생활을 본능에 지배받는 인간으로, 더 나아가 그의 성을 속세의 병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성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철저하게 가톨릭의 성 금기를 파괴하고 있다.

학창시절 어느 날 신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두 소년들인 익나시오와 엔리케는 서로 상대방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인식한다. 화장실로 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분위기다. 온 신학교를 다 뒤지며 익나시오를 찾던 마놀로 신부는 이 두 소년들이 화장실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들이 있는 곳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에 숨어서 그들이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행위들을 생각하고서 화가 난 그는 익나시오를 성전으로 데리고 간다.

마놀로 신부: 성전으로 따라오너라. 마놀로 신부: 중!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소년 익나시오: 난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난 더 이상 신이나 지옥 같은 건 믿지 않아.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겁도 나지 않아. 겁이 나지 않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76-77)

엔리케는 신부의 명에 의해 방으로 들어가고, 익나시오는 마놀로 신부를 따라가 성구실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된다. 이곳에서 익나시오는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의 중요 핵심인물인 마놀로 신부는 익나

시오에게 가톨릭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어린 소년이 자신의 몸을 팔았다는 처절한 감정이 들도록 만든다. 가톨릭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신앙을 빼앗은 것은 사제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알 모도바르는 역설함으로써 반 가톨릭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소년 익나시오: 그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원하시는 건 제가 뭐든지 할  
게요. 마늘로 신부: 썬. 너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니! 소년 익나시오: -난  
성구실에서 처음으로 내 몸을 팔았다. 엔리케가 퇴학당하는 것을 막기 위  
해. 하지만 마늘로 신부는 날 속였다. 언젠가 대가를 꼭 치르게 하고 말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맹세했다.(77-79)

이렇듯 신부의 익나시오를 향한 사랑의 감정과 그를 향해 품은 성적 욕망은 가톨릭의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금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시켜 사회체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조셉 브리스토우는 조르주 바타이유를 인용해, 터부가 사회로부터 폭력을 제거하는데 명백하게 기여한다고 말한다.<sup>24)</sup> 하지만 상징적 위반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발현 되어야 할 성을 인간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는 비록 이교도 시대에서부터 나온 불결한 관습들을 강력하게 억압해 왔다고 하더라도, 인간성의 모든 측면을 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상징적 위반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로서는 그 과잉성 때문에 리비도적 에너지를 수용할 수 없었다. [...]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기독교가 범죄 세계를 정화하고자 하면 할수록, 위반하려는 성적욕망의 치사력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다. 요약하자면, 바타이유는 섹슈얼리티가 왜 수치, 타락, 그리고 심지어 증오와 연관되어 왔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기독교가 안고 있다고 믿는다.<sup>25)</sup>

24) (조셉 브리스토우, 『섹슈얼리티』, 174-175.)

25) (『같은 책』, 176-177.)

사실 스페인의 민주화 이행기 동안 교회는 성 도덕과 가족에 대한 케케묵은 관점에 기인하여 대중들 속에서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상실하게 되었다. 스페인 사회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의 감소도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에 스페인에서는 64%의 사람들이 자신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가톨릭 신자로 간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27%로 하락했다.<sup>26)</sup> 1985년 한 여론조사결과 55%의 젊은이들이 가톨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종교에 대한 사회적 추이와 맥락에서 알모도바르의 영화와 종교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결국 알모도바르의 작품들에서 표출되고 있는 일탈의 성, 터부 파괴적 성은 인간의 욕망 분출의 탈출구를 찾고자하는 특별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소수자들, 그리고 성적욕망을 제도에 의해 억제당해 온 성직자의 욕망의 비정상적 탈출구를 묘사함으로써 터부의 침범을 일반화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성에 대한 관심도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금기의 파괴다. 영화감독이 되어 있는 엔리케를 만나러온, 자신의 형 익나시오로 가장한 후안, 즉 자신을 예명인 앙헬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후안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며 그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엔리케는 영화 작업 동료이며 동성애 파트너인 마르틴에게 고백한다. 사실 이 두 사람, 즉 마르틴과 엔리케는 동성애를 나누는 사이이다. 엔리케는 그를 보자마자 옛 추억속의 그를 생각하며 내심으로는 탐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다. 그러나 엔리케는 과거 신학교 시절에 둘 사이의 이별의 과정을 기억하며 차츰 익나시오(앙헬)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또 다시 영화에서의 사하라 역의 배역을 두고 약간의 갈등을 겪지만 결국 그들은 성적으로 결합한다. 엔리케는 자신의 별장으로 찾아온 앙헬(익나시오)과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눈다.

엔리케는 세면장에서 타월로 몸을 감고 아직 젖은 몸으로 방으로 들어

26) Álex Longhurst(2000), (Chen-yu Lin, 「El cine y la sociedad: “la iglesia” en la obra almodovariana de los años 80」에서 재인용)

27) (Martínez Vasseur(2005),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간다. 앙헬의 등 뒤에서 몸을 말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가까이 있는 장롱 거울이 그 장면을 배가시킨다). 이제 그들은 화학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는 부부사이로 변한다. 이 두 타인들은 이제 침대를 공유하고, 직업적 열정으로 영화를 공유하지만 개인적인 상호성이나 우호성은 없다.(108)

노골적으로 동성애자인 엔리케는 그가 신학교 시절의 동료 익나시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만, 후안에게 성적으로 매료되 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나중에 마놀로 신부는 성직을 파계하고 자신의 속세 명 베렝게르로 돌아와 출판사에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작품들을 출판하는 일을 한다. 마놀로 신부는 이제 신부복을 벗고 자신을 사취하려 했던 익나시오를 찾아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나시오의 동생 후안에게 빠진다. 비록 그는 신부복을 벗은 상태에서지만 최종적으로 신의 형벌을 받을 마지막 죄를 짓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후안과 공모하여 익나시오를 살해하는 행위다. 그는 이제 신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원죄의 인간으로 돌아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결국 베렝게르는 후안에게 달라붙어 그를 탐닉하고 그의 인생에 거추장스런 존재로 전락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베렝게르는 후안이 몰던 차에 치어 숨진다. 앙헬의 인생은「방문객」상영 이후 큰 인기를 구가하고 그의 의상 디자이너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엔리케는 계속 영화를 만들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소년을 탐닉하고 성직자의 계율을 파기하고 욕망의 늪을 헤매던 베렝게르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다.

마놀로 베렝게르 신부 앙헬의 삶에 계속 들러붙어 그를 협박하고 돈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방문객」상영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도망치는 차와 부딪쳤고, 시체가 되어 병원에 들어왔다.(170)

베렝게르는 신부복을 벗고 후안에게 빠져 들면서는 사랑의 포로로서 희생자가 된다. 베렝게르는 후안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욕망 때문에 후안에게 집착하고 그 때문에 살인

의 공범자 역할까지 하게 되는 마놀로는 가해자이지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피해자처럼 보인다. 신학교 주임신부시절에 저지른 유아 성폭력에 대한 성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결과로 파계한 후 그 벌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를 원했고, 열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열망했기에 최종적으로 죽음과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성적 욕망이 신의 의지를 거역하게 만들므로써, 신앙의 힘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해 주는 기재로까지는 승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신앙의 절대적 가치기준을 뒤흔드는 전복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년과 소년사이의 동성애, 신부와 소년, 파계한 신부와 후안, 엔리케와 후안사이의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체화하여 신성을 모독하고 가톨릭의 금기를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반가톨릭정서를 구체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IV. 나오는 말

이렇듯 이 영화는 한 성직자의 금지된 욕망의 지속과 실현이 가져온 비극적 파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린 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신부의 동성애적 욕망, 비정상적 성을 경험한 한 소년의 파괴 과정을 마약 중독을 통해 구체화 한다. 이 영화에서 종교인들에 의한 성적 악습들에 대한 주제는 프랑코시대의 민족 가톨릭시즘의 교육체제 내로 한정되고 의도적으로 일반화되지 못 하도록 마놀로 신부 주변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 영화의 대본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알모도바르 자신이 어렸을 적 다니던 신학교에서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대본 속의 인물들이 감독 자신과 일체화하는 것이나 자전적 영화로 평가받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본의 내용에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sup>28)</sup> 즉 프랑코 통치기의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본과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의 이 작품이

28) [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

반프랑코적이고 반가톨릭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알모도바르가 영화를 통해 구현하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 즉 성직자의 타락과 파멸에 대한 묘사는 일종의 신성모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와 공론화 되고 있는 소수자의 성에 대해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관심의 일단의 표현이다. 또한 성에 대한 고전적 의미의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의 파괴에 대한 담론이며, 이러한 유형의 성 담론은 현대 유럽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모순적 표현이다. 더 나아가 특히 성직자의 어린 아이를 향한 성적 욕망과 그 끝에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묘사는 신성모독적이고 반가톨릭 정서까지를 포괄하는 다면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유럽에서의 변화되는 성문화의 한 단면, 혹은 스페인의 성문화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 일반적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문화적 표현의 의미는 뒤집어 보면 한 편의 영화자체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스페인의 오늘날의 성문화 전반적 분위기의 변화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김보영·박종욱, 「현대 스페인 사회의 문화정체성 분석을 위한 전략-최근 문학과 영화를 통해 드러난 성-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제 23호, 2002.
- 뤼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 방법론』(박영신 외 옮김), 현상과인식, 1984.
- 박종욱, 「알모도바르의 영화에 있어서 욕망과 소통의 문제」, 『스페인어문학』, 제34호, 2005.
- \_\_\_\_\_, 「문학과 영화로 고찰한 성의 역사-스페인 및 남부 유럽 문화를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제24호, 2002.
- 『성경전서』, 새성경, 대한성서공회.

- 시부사와 타츠히코, 『몸, 쾌락, 에로티시즘』, 바다출판사, 1999.
- 엔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정 황정미 역), 새물결, 1996.
- 임호준, 「그로테스크 육체: 니에바와 알모도바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서어서문연구』, 제17호, 2000.
- \_\_\_\_\_, 「프랑코이즘의 청산에 있어 80년대 초 모비다 문화의 정치적 함의」, 『스페인어문학』, 제30호, 2004.
- 장클로드 스캥, 『스페인 영화사』, (정동섭 역), 동문선, 2002.
- ALMODÓVAR, Pedro, *Un guión de Almodóvar, La Mala educación*, Madrid: Ocho y Medio, 2004.
- \_\_\_\_\_, *La Mala Educación*, Madrid: El deseo, 2004.
- BLANCO AGUINAGA, Carlos, RODRÍGUEZ PUÉRTOLAS, Julio, ZABALA, Iris M.,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t. III, Madrid: Castalia, 1979.
- CAPARRO'S LERA, José María, *El cine del fin de milenio*, Ediciones Rialp, S. A., Madrid, 2001.
- HUERTA FLORIANO, Miguel Ángel, *Análisis filmico del cine español, 60 películas para un fin de siglo*, Salamanca: Caja Duero, 2006.
- JAVIER, Juan Payán, *Las cien mejores películas*, Cacitel, S.L., 2005.
- El País*. 2006.11.4. 30. 40-41.
- LIN, Chen-yu, “El cine y la sociedad la iglesia en la obra almodovariana de los 80”, *Estudios hispánicos*, Vol. 49, 2008.
- LÓPEZ MORENO, Cristina, *España Contemporánea historia, economía sociedad*, Sociedad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S. A., 2011.
- RODRÍGUEZ ROSELL, María del Mar, *Cine y cristianismo*, Edición realizada para la Universidad Católica San Antonio, 2002.
- Salvador, Anton, *Español de cine: Lo que hay que ver*, Blume, 2009.
- VIDAL, Nuria, *El cine de Pedro Almodóvar*, Barcelona, Destinolibro, 1988.
- <http://www.pedroalmodovar.es>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5248>
- <http://wrn2991.blog.me/50096860626>
- [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http://es.wikipedia.org/wiki/La_mala_educaci%C3%B3n)

❖ ABSTRACT

From anti-catholicism to cultural and sexual reflexion in Spain  
in the movie <La mala Educación> by Pedro Amodóvar

Song, Sun-ki

In modern Spanish culture, there is not other cineaste who has explored the controversial topic of sexuality deeper and more reiterative ways than Pedro Almodóvar. In our opinion, <La Mala Educación> fundamentally, is a metaphoric work about the corruption of the Catholicism during Francisco Franco regime in Spain. This movie is a brilliant and solid critic to the abuses suffered by a child in a religious school during the Franco regime. This movie is about the forbidden desire in Catholicism and the tragic end of a priest. Father Manolo sexually abused one of his students at the school; as a result, this student loses his sexual identity and ends up ruining his own life due to using drugs. Eventually he is revenged by his younger brother.

On this movie, <La Mala Educación>, Pedro Almodóvar portrays a sentiment of anticlericalism and blasphemy against God and Jesus Christ through a story which contains homosexual scenes and direct quotations of biblical cites, such as the expulsion of the merchants and sellers out of the temple in Jerusalem in the Mathew gospel to insinuate Jesus' lack of charity and love to others.

We conclude that Almodovar's description of the fallout of this priest, caused by his forbidden desire, is not only beyond anti-Catholicism but it can also be seen as an actual reflection of the cultural and sexual change in the European and, in particular, Spanish society.

---

Key Words

페드로 알모도바르, 나쁜 교육, 신성모독, 반가톨릭, 스페인 성문화의 변화 반영

Pedro Almodovár, La Mala Educación, Blashphemy, Anti-Catholicism, Spain  
Cultural-sexual change reflexion

논문접수일: 2011. 04. 30.

심사완료일: 2011. 05. 25

게재확정일: 2011. 06. 10